

최대 4%P 장려금 없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연장 검토...무주택 청년 20만원 월세 지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농업드론 방제사 등 18개 신직업 발굴·육성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실행계획 확정...33조100억원 재정 투입

정부가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대체불가토큰(NFT) 아트에이전트 등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미래유망 신(新)직업 발굴·활성화=우선 정부는 신기술·융합분야 5개, 교육·의료분야 2개, 문화·여가분야 4개, 농림·수산분야 4개, 환경분야 3개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했으며 이 직업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기술·융합분야에서는 NFT를 활용한 미술품 제작·관리·홍보와 증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NFT 아트에이전트, 메타버스 캐릭터·아이템을 개발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데이터거래 전문가, 산업수학 모더레이터, 스마트 안전관리사가 신직업으로 제시됐다.

교육·의료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온라인 교육 장비를 다루는 에듀테크니션이 꼽혔고, 문화·여가분야에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사, 문화유산교육사, 미술품 시가감정사, 해양치유사가 신직업으로 언급됐다.

농림·수산분야 농업드론 방제사, 농작업 안전관리관, 수산물 안심유통 컨설턴트, 어선투자 분석가와 환경분야 친환경건설박 인증전문가, 에너지효율 측정·검증전문가가 신직업으로 발굴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 라벨러, 온라인 튜터,

유전 상담사, 농촌교육농장운영자, 수직농장전문가, 스마트양식체형장 코디네이터, 여초정착상담사, 집합건물관리사, 특허전담관 등 민간에서 자생한 신직업 9개도 소개했다.

정부는 신직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제공할 포털 등도 만들 계획이다. 청년구직자가 신직업에 도전하면 직무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 기업과 대학에도 신직업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 위기 업종 지원 연장 검토...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정부는 또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방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4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금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3월 31일 끝나지만, 일부 업종에는 그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간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계획 확정=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중 한국판 뉴딜에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상반기에 배정된 규모가 23조1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청년과 격차 해소 등 포용성 강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쏠는다. 우선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없어주는 것이다. 기본금리가 연 2%라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것이다.

연소득 2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

를 매칭해서 쌓아주는 상품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은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00만원을,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본격 추진하고,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돌봄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DNA(데이터·네트워크·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린뉴딜은 그린에너지·모빌리티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2조4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 생산 '비스포크' 미국시장 본격공략

대용량 모델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 '비스포크' (BESPOKE) 가전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광주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 1도어, 상냉장·하냉동, 4도어 타입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도입해 현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4도어(프렌치도어), 3도어, 패밀러허브 등 3가지 모델을 추가로

선보인다.

올해 '당신에게 맞는 냉장고를 디자인하라' (Designed for you, by you)를 컨셉으로 비스포크 냉장고를 미국시장에 선보인 삼성전자는 2년차를 맞는 내년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용량 모델 라인업을 강화해 비스포크 냉장고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 새로 도입할 4도어(프렌치도어), 3도어 타입의 비스포크 냉장고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교체 가능한 도어 패널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국시장에서 호평 받아 온 냉각 기술과 편의 기능을 대거 탑재한 제품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최신 단열 기술로 넉넉한 내부 용량을 갖추고, 식재료에 따라 최적의 온도로 보관이 가능한 '플렉스 존' (FlexZone)과 냉장실과 냉동실을 독립적으로 냉각하는 '트윈 쿨링 플러스' (Twin Cooling Plus) 등이 적용됐다.

또 올 하반기 냉장고, 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를 출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BESPOKE JET) 등 리빙 제품까지 추가해 '비스포크 홈'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어가 소득증진 기여 전남도의회 감사패 전달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준사·가운데) 지난 29일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가 소득 증진에 기여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정광호·최병용·박종원 의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협 전남본부 제공)

오미크론 확산에 11월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 감소

전달비 광주 63억·전남 59억원 ↓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며 경기 회복을 노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달보다 감소했다.

30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광주 1553억2200만원·전남 635억5700만원으로, 전달보다 각각 3.9%, 8.4% 감소했다.

광주는 전달보다 63억원 가량 줄었고, 전남은 59억원 감소했다.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지난 8월 1394억원부

터 9월 1564억원, 10월 1619억원 등으로 두달 연속 늘고 있었지만 지난달 반락했다.

전남은 9월 735억원→10월 694억원→11월 636억원 등으로 두 달 연속 감소 추세다.

전국 대형소매점 매출은 전달보다 5.5% 감소한 5조851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0월 광주 3대 백화점은 해외 명품과 골프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하며 통계를 낸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또 다시 늘면서 광주 백화점들 매출은 전달보다 1.3%(-13억3000만원)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 역시 지난달 548억9500만

원으로, 전달보다 8.2%(-49억3100만원) 줄었다.

한편 이날 발표한 호남지방통계청 '11월 산업활동동향' 지난달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하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는 12.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9%이었다.

광주에서는 자동차(17.0%)와 1차 금속 제조업(65.5%), 전자부품(19.3%) 생산액이 증가했다. 전남은 화학제품(37.8%)과 석유정제(28.3%) 부문 생산이 늘어 호조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경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관평가 '최우수'

프로그램 수료자 취업률 37%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전국 운영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경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제2의 인생 준비를 돕는 생애경력설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올해 생애경력설계 1146명, 재도약 프로그램 87명, 전직스쿨 프로그램 99명 등이 수료해 목표

대비 높은 성과를 거뒀고, 지난달 15일까지 평가 기간내 프로그램 수료자 취업률은 36.6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40대가 20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총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와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서비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중장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